

#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 예산 확보 총력전

### 연일 국회 상주하며 상임위원장·예결위원 등 만나 주요사업 필요성 역설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대변혁을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연일 국회에 상주하며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 등을 만나는 광복 행보에 나섰다.

특히 우 시장은 지난날 31일 주요 사업 소관 국장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연구 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활동에 나선 데 이어, 1일에는 국가예산의 키포인트인 국회 예결위원장과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상대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연일 전략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일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사업 소관 상임위원인 이상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우 시장은 먼저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회 단계 반영이 필요한 중점 12개 전체사업의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특히 왕의공원 프로젝트와 관련해 후백제 역사문화 연구·조사·보존·정비·활용 등 후백제 전문 국



우범기 전주시장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만나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립거점연구기관을 조성하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우 시장은 이상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는 △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

△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랩 구축' △ '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등 신규사업 5건과 △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사업' 등 계속사업 4건의 추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을 상대

로는 바이오 융합형 혁신의료기기 분야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에 필요한 '메카노 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예결위·운영위·문체위 수석전문위원 3명에게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주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시는 향후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며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동향을 파악하고,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 예결소실위원, 국회 핵심 인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추진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 전주의 미래를 바꿀 성장동력을 만들어줄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산안 확정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시로 방면해 건의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전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 전주시의회, 각종 위법·부당 행위 등 24일까지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16~24일)를 앞두고 각종 불편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각종 위법·부당 행정행위, 시정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으로 제보 기간은 이날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24일까지다.

제보된 내용은 검토 후 행정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기타 의정활동에 자료로 활용한다. 제보는 전주시의회 홈페이지나 우편·방문, 각 의원과 상임위원회 전화(운영위 230-3525, 행정위 230-3535, 복지환경위 230-3545, 문화경제위 230-

3555, 도시건설위 230-3565)를 통해 접수하며, 제보자의 개인신상정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꾸려진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을 중심으로 최주만·최용철·채영병·신유정·김정명·이보순·장재희·최지은·이성국·장병익·이국·천서영 의원이다.

김윤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감사가 이뤄지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가을철 산불방지 비상체계 가동

전주시가 가을철 산불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먼저, 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할 산불감시원 56명과 산불전문진화대 50명, 산불기계화진화대 2명 등 산불감시 근로자 총 108명을 산불취약지역과 거점 지역에 배치한다. 또, 산불 진화 차량 5대와 드론 6대 등 39종, 4055점의 진화장비를 갖췄다.

동시에 시는 산불감시 카메라와 드론, 산림청 산불상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GPS 단말기를 활용해 빈틈없는

산불감시에 나서는 한편, 전북도청 산림 부서와 공조 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공중진화용 헬기 8대를 지원받기로 했다.

또한, 시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주요 산별 원인인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산자 관리 중심의 예방·대응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지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인화 물질 안 가지고 다니기 △취사 행위 안하기 △담배 피우지 않기 등을 알리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당직실과 연계해 24시간 산불감시 활동이 이뤄진다. /김욱기 기자

## 전주 맛·멋·열정 담은 '전주페스타' 성황리 막 내려

### 10월 한 달간 음식·소리·문화·역사 등 담은 14개 축제 개최

10월 한 달간 전주의 맛과 멋, 열정을 담은 다양한 문화축제로 가을을 풍성하게 채운 축제시즌 '전주페스타 2023'이 다음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10월 6일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서 열린 '전주페스타 2023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전주의 음식과 역사, 한지, 문화 등 전주의 모든 콘텐츠를 담은 14개 축제를 선보인 '전주페스타 2023'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개최된 '전주페스타 2023'은 기존 개별적으로 개최되던 다양한 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주의 풍부한 문화콘텐츠와 축제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먼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주종합경기장 및 옛 야구장 부지에서 '전주비빔밥축제'와 연계해 개최된 '전주페스타 2023 오프닝축제'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통해 전주의 맛과 멋, 열정을 10

만여 명의 관광객들에게 알렸다.

또한, 7일에는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례 재현행사'가 노송광장에서 경기전까지 이어지는 행렬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진행됐으며, 같은 날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거리예술 축제인 '전주예술난장'이 펼쳐졌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는 '전주 국제한지산업대전'과 '전주한지패션대전'이 진행돼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어, 둘째 주에는 전주의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 '전주문화재야행'이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경기전 일원에서 진행되고, '전주조선팔레스티벌'이 서해예술광장에서 열려 전주의 가을밤 매력을 제대로 알렸다.

10월 셋째 주에는 일상 속 한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복문화주간'이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어진을 주제로 한 역사 이야기와 탐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태조어진



10월 한 달간 전주의 맛과 멋, 열정을 담은 다양한 문화축제로 가을을 풍성하게 채운 축제시즌 '전주페스타 2023'이 다음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봉안축제'가 경기전에서 펼쳐졌다.

끝으로 10월 넷째 주에는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난 30일 막을 내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는 국내외 발효식품과 이를 만나기 위해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 첫선을 보인 '전주페스타 2023'의 방문객은 약 65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다양한 축제의 연계를 통해 한 달 동안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며 숙박 및

요식업 등 연계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황관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축제시즌 '전주페스타 2023' 운영을 통해 전주의 수많은 문화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개별 축제 간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면서 "축제 시즌의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더욱 체계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축제를 통한 전주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전북대, 지역인재 글로벌 금융투자 특강

전주시가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인재들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특강을 마련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는 오는 10월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과 함께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글로벌 금융투자 특강'을 개최한다.

1947년 뉴욕에서 설립된 프랭클린템플턴은 현재 총 1조 400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투자운용사 중 하나로, 지난 8월 전주혁신도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특강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금융전문가인 전운배 고문이 강사로 나서 △금융투자의 기본과 위험관리 △글로벌 금융트렌드 및 리더십 △투자자의 함정과 금융위기 등의 강연과 금융분야 현장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는 전주지역 청년 등 금융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전북대학교 금융연계경제학 융복합 연계전공 과사무실(063-270-3003)과 전주시청 신성장산업과 금융산업팀(063-281-2548)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